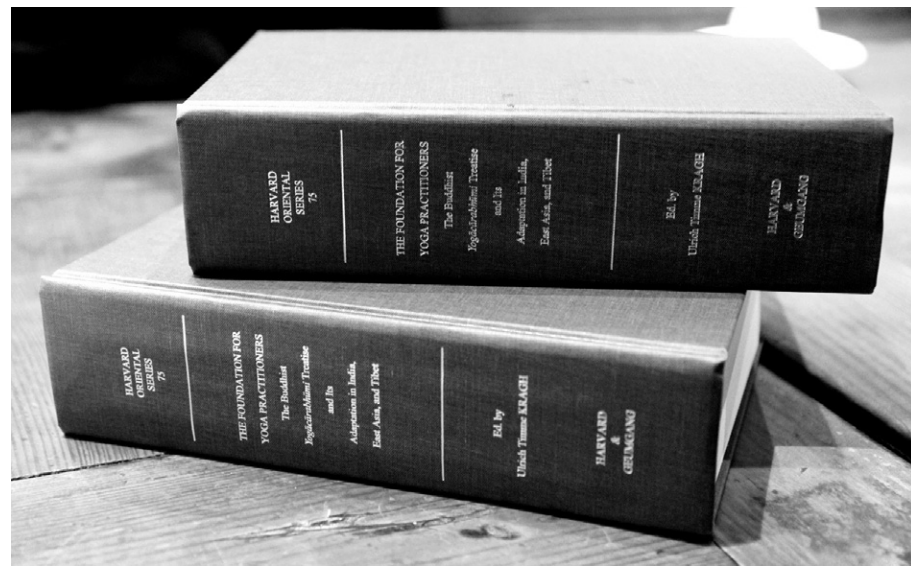


금강대 하버드대 유가사지론 집대성 총서 간행

금강대 등 세계석학 34명 논문 <유가행자들의 불교적 토대>



금강대가 하버드대와 공동출판한 '하버드대동양학총서75' 서문에는 정병조 금강대 총장 등의 공동 발간의 계기 등이 실렸다.

금강대가 하버드대와 <하버드대동양학총서>를 공동출판했다. 하버드대가 외부 대학과 동양학총서를 공동출판하기는 총서 출간 120년 사상 최초다. 이번에 공동출판된 총서는 <유가행자들의 불교적 토대: 인도·동아시아, 그리고 티베트에서 '유가사지론과 그 수용'으로 하버드대동양학총서로는 75번째다. <유가행자들의 불교적 토대>는 정병조 금강대 총장과 김천학 불교문화연구소 소장의 서문을 시작으로 총 1429페이지에 <유가사지론>에 대한 최신 연구성과를 망라하고 있다.

<유가사지론>은 인도 대승불교 유식학파의 수행과 사상을 백과사전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헌으로 유식학파의 최초 문헌이자 근본 문헌으로 간주되고 있다. 책에는 서구 유식연구의 대가로 꼽히는 독일 함부르크 대 람버트 슈미트하우젠 교수와 미국 하버드대 반 데이 케이 교수, 미국 하버드대 반 데이 케이 교수를 비롯해 일본 와세다 대 요시무라 마코토 교수, 중국 쓰촨대 빙첸 교수 등 관련 전공 학자 34명의 논문이 실렸다. 한국에서는 안성두 서울대 교수, 김성철 금강대 HK교수, 박창환 금강대 교수, 차상엽 금강대 HK교수의 논문이 실렸다. 이밖에 전 금강대 HK교수를 지낸 올리

<하버드대동양학총서> 동양 연구의 최고 권위 2008년 학술대회에 놀란 하버드, 이례적 수용 공동출간은 하버드대 총서 출판 120년 만에 최초 총 1429페이지에 유식학 흐름 전반적으로 다뤄

히 팀베 크라우 네덜란드 라이덴 대 교수 2부에서는 <유가사지론>의 의미를 검토가 영역 총괄 및 편집을 맡았다. 책의 총 3부로 구성되었다. 1부에서는 <유가사지론>이 인도에서 어떤 배경으로 저술됐는지 고찰하고 있다.

자들의 불교적 토대)를 1만부 인쇄할 계획이다.

박창환 금강대 교수는 "유가사지론은 현장 스님 구법행의 계기가 되기도 했으며 중국 법상종을 비롯해 티베트불교 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그 비중에 연구는 제한적이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그동안 일본학계가 주도한 유식연구는 부분적인 연구가 주였다"며 "유식관련 전세계 주요 학자들이 유가사지론의 전반을 ?고 그 유통의 흐름을 짚은 것은 사상 최초"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차상엽 금강대 교수는 "2008년 금강대가 개최한 제3회 국제학술대회 '유가사지론과 유가행자들'의 성과에 대한 하버드대의 관심이 이번 책 출간으로 이어졌다"며 "한번도 공동출판을 허락하지 않았던 하버드대동양학총서가 금강대와 공동으로 작업에 나선 것은 이런 흐름과 연구 성과를 인정했"이라고 평가했다.

차 교수는 이어 "4년간 이번 책 출간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금강대가 국내 출판권을 보유한 만큼 향후 한역 등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김성철 금강대HK교수는 "금강대는 현재 유식에 이어 한중일 삼국에서 여래장의 수용과 변용에 대한 국제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며 "각국과 연계해 그동안 지엽적으로 진행돼오던 불교학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학술 · 문화재소식

"염불 수행 근원 초기불교에 있다"

조준호 박사, 제7회 선리연구원 학술회의에서

염불의 근원이 초기불교의 선정수행법에 있으며 간화를 간화선으로 표현한 것과 마찬가지로 염불 또한 염불선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준호 한국외대 인도연구소 연구원은 6월 17일 서울 정법사 설립전에서 열린 제7회 한국불교선리연구원 학술회의에서 초기 경전에 나타난 염불수행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염불 수행이 초기 선정수행법의 일부라고 주장했다.

조준호 교수는 '선과 염불의 관계-염불선의 기원과 전개에 대한 비판적 고찰'에서 <수타니파타>의 '피안도품'에 나타난 염불사상을 예로 들었다.

조 교수는 또 "초기경전에서는 염불로 탐진치에 사로 잡히지 않음을 표현하고 있으며 염불을 자비심을 발현시키는 행법으로 까지 나타내고 있다"며 "초기경전에서 염불로 시작되는 육념법을 뒤기 위해서는 오근과 오력을 뒤야 한다고 표현하는 등 염불의 수행론적 위상을 높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초기불교 수행논서인 <정정도론>에서도 염불수행은 사마타 수행의 40가지 삼매 주제 수행 중 하나라고 설명하고 있다"며 "염불은 불교주류 전통에서 선정 수행의 범위에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조준호 교수는 단순한 정명불을 염불로 부르는 것은 초기경전에 나타나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염불은 정학으로 구행(口行)인 정명보다 의행(意行)의 범위"라고 말했다. 조준호 교수는 "선정(禪定)이나 삼매(三昧, samadhi)의 의미가 강하기에 염불은 염불선의 의미를 지닌다"며 "염불선은 간화선 지상주의로 비판받는 한국불교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근거와 성향에 맞게 제시한 다양한 종류와 단계별 수행법을 도입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회에서는 황정일 박사(보조사상연구원)의 '법구의 삼세실유설에 대한 비판과 그 의미'와 김광식 동국대 연구교수의 '반암의 불교화과정', 쌍계사 승가대학장 월호 스님의 '〈능엄경〉에서 법의 의미와 휴식형 템플스테이' 등 선리연구원 학술상 수상자들의 발표가 각각 진행됐다.

노덕현 기자

문화재청,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복원 동참

6월 20일, 유적 총괄하는 압사라청과 보존관련 MOU 체결

앙코르와트 보존에 한국 문화재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문화재청(청장 변영섭)은 6월 20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앙코르 유적 전체를 총괄하는 압사라청(The Authority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Ankor and the Region of Siem Reap)과 앙코르와트 보존·복원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문화재청은 2011년 한국과 캄보디아 간 전반적인 문화유산 분야 보존 협력에 합의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문화재청은 앙코르

통(Angkor Thom)에 위치한 프레이피투 사원의 보존작업에 착수한다.

프레이피투 사원은 현재 지의류(地衣類: 나무 줄기나 바위 등에 붙어사는 식물군) 식생으로 유적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상황이다. 문화재청은 압사라청과 협력해 현황을 분석한 후 정비를 실시한다. 문화재청은 MOU 체결에 이어 무상원조 협조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이번 사업예산을 신청하고 2014년부터 기초 현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연구회 '보살과 미륵신앙' 여름 워크숍

7월 19~20일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불교학연구회(회장 조은수)는 7월 19~20일 전북 김제 금산사에서 '보살과 미륵신앙'을 주제로 여름 워크숍을 개최한다.

금산사는 신라 진표유사가 중창한 사찰로 한국 미륵신앙 중심지로 꼽히고 있다. 19일 학술세미나에서는 조계종 자성과래 신결사추진본부장 도법 스님이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보살이란 누구인가'를, 심재관 금강대 HK교수가 '보살사상의 연원'을, 박광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가 '진표와 미륵신앙'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20일에는 금산사 귀신사 화암사 송광사 순례가 진행된다. (02)880-6290

노덕현 기자

"진감 선사 범패는 선법 대중화 위한 방편"

고산문화재단, 6월 21일 동국대서 학술세미나 개최

"범패를 통해 전통 범회 문화를 계승하고 선사상을 널리 펼 진감선사는 당대 혁신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고산문화재단(이사장 영담 스님)은 21일 오후 2시 서울 동국대 학술문화관 덕암세미나실에서 '진감선사 해소의 생애와 사상'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최현 부산대 국악과 교수의 '진감선사 해소와 한국의 범패'와 조범환 서강대 사학과 교수의 '진감선사 해소와 한국의 선불교'가 발표됐다.

이날 조범환 서강대 교수는 "진감선사의 범패는 대중교화의 한 방편"이라며 "이러한 점은 신라 교종 승려들과는 크게 다른 실천행으로 나팔려조 선종이 지니는 혁신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조범환 교수는 "진감선사는 신라 여러 선종과 달리 범패를 익혀 돌아왔다. 이에 동산어산의 큰 흐름을 이뤘다"고 설명하고

"그의 사상은 남종선 여러 산문 중 교학과 전통 범회 방식을 수용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후대 회양산문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진감 선사 백장 청규를 만나 실천적 선수행이란 큰 전환을 이루었다. 이러한 태도는 신라 교종 스님들과는 크게 다른 것"이라며 신라 선종사 연구에서 진감선사 연구가 보다 본격화돼야 함을 강조했다.

"진감선사 해소와 한국의 범패"를 발표한 최현 교수는 "진감선사의 범패에 대한 기록이 없기에 학자마다 달리 해석하고 있는 불교음악사 연구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선승인 진감선사가 육전사에서 범패를 가르쳤고 이를 배우려는 이가 많았다는 기록은 단순한 염불 형태의 음악이 아니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편, 진감 해소 선사(774-850)는 쌍계

산문을 개창한 개산조이자 범패를 우리 땅에 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의 행적은 쌍계사에 세워진 국보 제47호 '진감선사대공탑비'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진감선사 학술세미나를 처음 개최한 고산문화재단 이사장 영담 스님은 "진감선사는 우리나라 범패 어산의 선구자이자 범패

'동산어산' 큰 흐름 이뤄 후대 회양산문에 이어져 불교음악사적으로도 연구과제

를 수행으로 승화시킨 인물이지만 선사의 생애와 사상은 그 무계에 비추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해왔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진감선사의 생애와 사상을 본격적으로 재조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070)7825-8811

노덕현 기자



진감 선사 진영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1-248-6298

심재관 금강대 HK교수가 '보살사상의 연원'을, 박광연 동국대 불교학술원 HK연구교수가 '진표와 미륵신앙'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20일에는 금산사 귀신사 화암사 송광사 순례가 진행된다. (02)880-6290